



11월 5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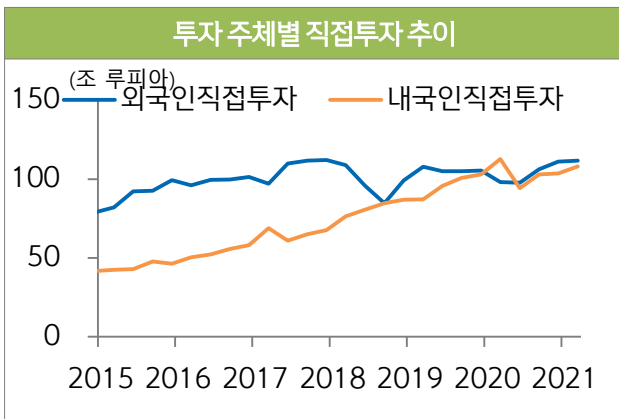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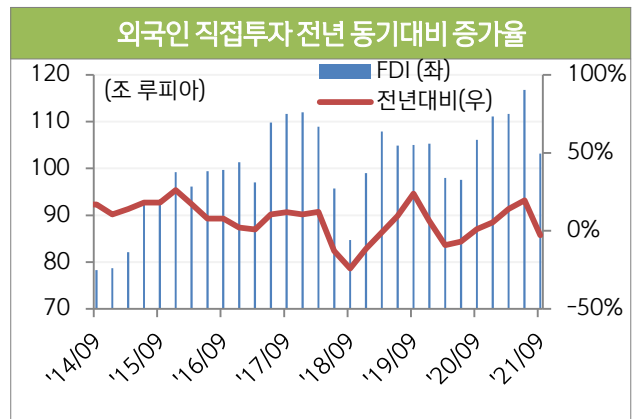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국내외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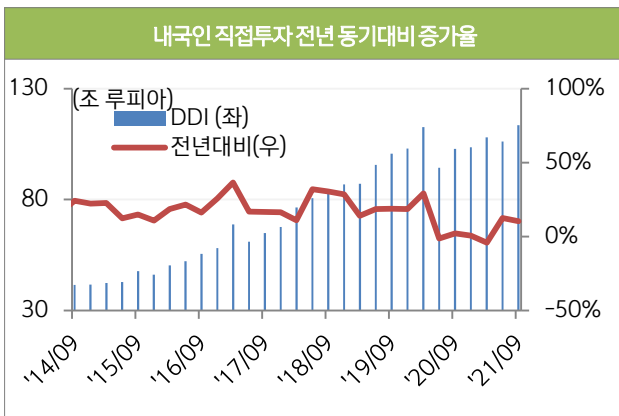
- ▶ 투자조정청(BKPM)이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2021년 3분기 직접 투자 동향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고 내국인 직접투자(DDI)는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음
- ▶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103.2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내국인 직접 투자는 113.5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합산 투자 금액은 216.7조 루피아로 전분기의 223조 루피아보다 6조 루피아 감소하였음.
- ▶ 3분기에는 6월 하순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델타변이의 영향으로 7~8월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소비 및 투자활동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을 받았음. 1분기에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음식료 부문에 대한 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이 되면서 3분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 3분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속에서도 금속 산업 및 광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속되었음.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배터리와 관련한 비철금속 수요가 지속되고**,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을 제한하면서 제련소 등 다운스트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금속 및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임. 이러한 흐름은 단기에 끝나지 않고 향후 2차전지, 전기차 생산까지 하류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확진자수 재차 증가라는 충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3분기의 부진을 딛고 4분기부터는 다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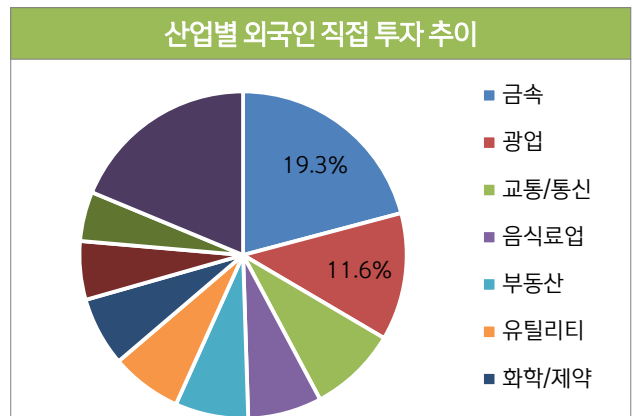
자료: BKPM



자료: BKPM



자료: BKPM



자료: BKPM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1.26	11.1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493.03	1,452.35	↑ 2.80	↑ 35.25	1,003.08 '20/11/30	1,500.81 '21/11/25
인니	자카르타종합	6,561.55	6,720.26	↓ -2.36	↑ 9.74	5,612.42 '20/11/30	6,723.39 '21/11/22
인도	SENSEX	57,107.15	59,636.01	↓ -4.24	↑ 19.59	44,149.72 '20/11/27	61,765.59 '21/10/18
중국	상해종합	3,564.09	3,560.37	↑ 0.10	↑ 2.62	3,347.19 '20/12/11	3,715.37 '21/09/13
	심천종합	2,507.15	2,490.27	↑ 0.68	↑ 7.63	2,160.91 '21/03/09	2,525.58 '21/11/22
홍콩	H	8,576.07	8,970.67	↓ -4.40	↓ -20.14	8,412.72 '21/10/06	12,228.63 '21/02/17
	항셱	24,080.52	25,049.97	↓ -3.87	↓ -11.57	23,966.49 '21/10/06	31,084.94 '21/02/17
한국	KOSPI	2,936.44	2,971.02	↓ -1.16	↑ 2.19	2,591.34 '20/11/30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1.26	11.19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1	2.09	↑ 2.00	↓ -46.80	2.06 '21/09/15	2.65 '21/02/26
인도네시아	6.09	6.04	↑ 5.60	↑ 20.60	5.89 '20/12/30	6.80 '21/03/19
인도	6.33	6.34	↓ -1.40	↑ 46.50	5.82 '20/12/04	6.39 '21/10/18
중국	2.86	2.93	↓ -7.00	↓ -28.80	2.82 '21/08/06	3.32 '20/11/27
한국	2.26	2.38	↓ -11.80	↑ 54.00	1.64 '20/12/23	2.56 '21/10/29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1.26	11.1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674.00	22,650.00	↑ 0.11	↓ -1.84	22,645.00 '21/11/12	23,165.00 '20/11/26
달러-루피아 (IDR)	14,358.00	14,232.00	↑ 0.89	↑ 2.19	13,895.00 '21/01/04	14,615.00 '21/04/15
달러-루피 (INR)	74.87	74.24	↑ 0.85	↑ 2.46	72.33 '21/02/24	75.52 '21/10/12
달러-위안 (CNY)	6.39	6.39	↑ 0.10	↓ -2.05	6.37 '21/05/28	6.58 '20/11/30
달러-원 (KRW)	1,193.56	1,185.12	↑ 0.71	↑ 9.85	1,081.81 '20/12/04	1,198.85 '21/10/12

주요 뉴스





중앙은행, 2022년 성장률 전망 4.7~5.5% 범위로 상향 조정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목표보다 소폭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부터의 회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음. 2022년 통화정책 목표는 루피아화 가치 유지를 최우선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중앙은행 총재는 2022년 성장률 전망을 4.7~5.5% 범위로 상향 조정하였음. 2021년 3.2~4% 범위의 성장률보다 개선되는 방향이라고 중앙은행 연례 회의 자리에서 설명함. 경제 회복이 수출, 소비,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재정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2021년에는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지만 2022년에는 2021년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2~4% 수준의 목표 범위 이내에서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이러한 안정된 성장률과 물가 수준에 기반하여서 루피아화 가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우선적으로 미국 연방 준비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에서 루피아화 가치가 충격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삼을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담 기간 중 의전 차량으로 현대차 EV 사용 예정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가 내년 12월 발리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담 기간에 현대차로부터 전기차를 제공받아서 의전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현대차와 전기차 공급망 참여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있을 G20 기간 동안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의전용 차량으로 전기차량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일반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9%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국제 사회의 지원 속에 41%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사용할 전기차량을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HMD)로부터 공급받아 활용하기로 하였음. 2022년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기간 동안에 현대자동차는 42대의 전기차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여기에 더해 전기차량 운전사들에 대한 훈련과 2개의 전기차량 충전소를 세우는 것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경제조정부에서는 발표하였음. 현대차는 15.5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통해 서부 자바 Deltamas Bekasi에 아세안지역 첫 공장을 건설 중이며, 매년 25만대의 생산량과 수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정임.
-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는 오프라인으로 내년 12월 6~8일 기간 중 개최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내년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G20 국가 외에도 초청 국가, 국제기구 39개 국가/기구에서 104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무역, 투자, 산업 부문의 구조개혁 내용에 대해서 회원국들에게 보여줄 기회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음.



재무부, 2022년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 예산으로 414조 루피아 편성



❖ 요약 및 시사점

2022년에도 2021년에 이어 코로나19 국가 경제 회복 예산이 별도 편성되었음. 2021년에 비해 배정 규모는 낮았지만, 보건, 사회보장, 경제회복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경제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임

-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회복(PEN) 예산으로 414조 루피아(289억 달러)를 확정지었다고 밝혔음. 국가 회복 예산은 보건 예산 1179조 루피아, 사회 보장 154.8조 루피아, 경제 회복 프로그램 141.4조 루피아로 구성되었음. 보건 분야 및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 편성 금액은 코로나19 대응 및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서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음.
- 경제 회복용 국가 경제 회복 예산은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지방 정부들에 대한 자금 지원, 금융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최종 금액은 여전히 조정 중인 상황임.
- 보건 분야 예산은 코로나19 검진, 추적 치료,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등 BPJS 국가 안보 위원회와의 비용 분담 정책에 따라 사용될 예정이며, 보건 근로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용으로도 배정됨. 또한 백신 접종, 백신 세금 지원, 지방정부들의 보건 치료 조치 등에도 배정됨
- 사회보장용 예산의 경우 1천만 수혜자를 목표로 한 가정지원, 1,880만 수혜자를 목표로 한 기초 식료품 지원, 290만 수혜자를 목표로 하는 실업자 지원 및 실업자 가족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임.
- 경제 회복 예산은 인프라 구축, 관광유관 산업 지원, 식료품 수급 안정 프로그램, 산업 단지 개발, 세제 혜택 등에 집행 계획임.
- 2021년 국가 회복 예산에서 계획한 것들이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유연한 예산 집행을 통해 긍정적으로 이뤄졌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효과를 제한한 만큼, 2022년에는 더 이상 확진자수 급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회복이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재무 장관은 밝혔음.



FITCH,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안정적 전망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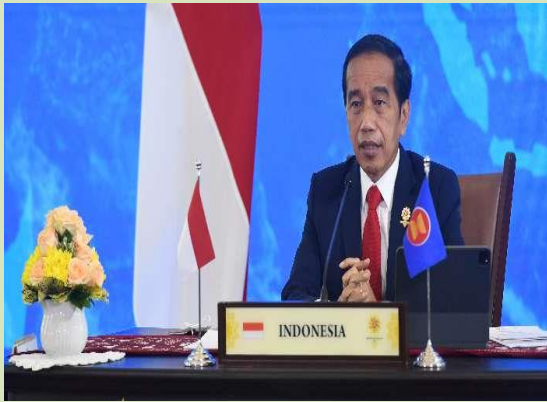
❖ 요약 및 시사점

글로벌 신용평가사 FITCH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안정적)으로 유지 하였음. 2022년부터 성장률 회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수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도 밝혔음.

- 중앙은행은 2021년 11월 22일자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FITCH가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BBB(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달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거시 경제 안정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였으며, 중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회복 사이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받은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설명하였음.
- 국내 경제의 강한 회복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조화가 신뢰감 있게 유지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평가이며, 중앙은행이 거시 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국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발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FITCH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재확인하면서 중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서 대외 부채 부담이 존재하고, 국가 재정 수입이 빈약하며, 아직 여러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등급 유지를 함께 있어서 도전 과제라고 지적하였음.
- 올해 6~8월 사이에 코로나19 환자수가 급증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기존의 경로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2022년에는 6.8%의 성장을 보일 수 있고, 이후에 일자리 창출 법안에 힘입은 투자 유입 확대가 이뤄진다면 6%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밝혔음.
- 재정 규율인 GDP대비 3% 미만 유지의 달성은 2023년에 경제 회복과 함께 세금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음. 2021년 재정 적자는 GDP대비 5.4%, 2022년 재정 적자는 4.5%이 될 것으로 전망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조코위 대통령, G20에 에너지 전환 기금 마련을 요청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내년 주최하는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G20 차원의 공동기금 마련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저개발 국가가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가 개최하는 G20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들에게 에너지 전환 기금의 조성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음. 대통령은 그저 지난 1~2년간 얘기되어왔던 대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운영 방안으로써의 기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하였음.
- ▶ 글로벌 에너지 구성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해당 가격 차이 부분을 국가나 공공 부문에서 기금을 통해서 채워줘야만 전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 일정부분은 기부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결과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음.
- ▶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현재의 석탄 발전 등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비싼 가격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투자 및 기금 조성도 쉽지 않다고 밝혔음. 이로 인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큰 상황임.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인 탄소 중립 전환을 모두 자체 기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임.
- ▶ 조코위 대통령은 해양투자조정장관과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 국영기업부 장관을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이에 따른 전환 비용에 대해 검토할 담당으로 지명하였음. 이들의 조사 결과는 내년 G20 발리 총회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임.



벤처캐피탈 Antler, 향후 4~5년간 100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 투자 계획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발전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 업체들의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초기 투자 전문의 Antler가 향후 5년간 100개 스타트업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5만개 지원서가 접수되는 등 창업 열기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초기 벤처투자 전문회사인 Antler는 향후 5년간 100개의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Antler는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에게 이번 초기 투자 프로그램의 기회가 열려있으며, 스타트업 팀, 비즈니스 아이디어, 상품 및 목표 시장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음. 벌써 50,000개가 넘는 지원서들이 밀려든 가운데 Antler는 이 중 3~5%의 상위 스타트업들만이 선정될 것이라고 하였음.
- 선정된 각 스타트업 기업들은 7만 달러의 현금 지원 및 3만 달러 규모의 Antler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총 10만 달러 규모를 투자받게 되는 것임. 매년 대략 2개 집단 정도가 선정되고, 각 집단에서는 10~15개 스타트업들이 선정되어, 매년 20~30개 스타트업들이 선정 운영될 것임. 향후 3~5년간 약 매년 2~2.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임.
- Antler는 2017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벤처투자기업으로 16개 국에 걸쳐 350개 기술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인도네시아가 클린에너지 잠재력 대비 0.3%를 사용하는데 그친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적도 주변의 지리적인 이점을 기반으로 하여 태양광, 풍력, 지열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이 늦은 상황임. 점차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활용을 늘리고 석유 의존도를 줄여서 탄소 중립 및 경제 체질 강화를 노리고 있음

-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국가가 지닌 잠재력에 비해 0.3%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클린에너지 잠재력은 3,644 GW 수준으로, 3,294.4 GW의 태양에너지, 94.6GW의 수력에너지, 56.9GW의 바이오에너지, 154.9GW의 풍력에너지, 23.7GW의 지열에너지, 59.9GW의 해양에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서는 잠재력 규모를 추산하였음.
- 이렇게 풍부한 클린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비중은 10,889MW 수준에 불과하며, 194MW의 태양에너지, 6,432MW의 수력에너지, 1,923MW의 바이오에너지, 154MW의 풍력, 2,186MW의 지열에너지 정도를 이용하는 수준임.
- 이런 잠재된 재생에너지에 더해서 다양한 신에너지 잠재력도 아직 크게 발굴되지 않은 상태인데, 원자력과 수소 전력에 대한 잠재력은 빼고도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잠재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석유 소비는 여전히 생산량 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국가 경제에도 무역 수지 적자의 요인이 되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앞으로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안정에 있어서도 대안 에너지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음.
-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5대 원칙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클린에너지의 사용 증대, 화석 에너지의 사용 축소, 운송수단으로 전기차량의 사용 증대, 가정 및 민간 에너지 원천으로 전력 사용 증대, CCUS 관련 친환경 기술의 개발 등임
- 과거 5년간 인도네시아의 클린에너지 생산은 1,469MW 수준 증가하여 연평균 4% 증가하는데 그쳤음. 올해 1~9월까지 클린에너지 생산 캐파는 386MW 증가하였는데 주로 수력발전, 지열발전,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순이었음.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의 녹색 전환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필요성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력일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금융 지원을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전환을 제안함

- 인도네시아의 녹색 전환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계은행은 강조하였음. 민간의 투자와 민간 금융의 유치를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국가 내 민간 부문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본을 채워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 담당 국장이 밝혔음.
-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정책 수립 지원, 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등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은 기술 지원과 정책 제안 등이 첫 단계로 국제 사회의 선제적인 경험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금융 지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녹색 금융은 매우 비싼 과정이라면서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는 충분한 금융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음.
- 세계은행이나 각종 글로벌 금융 지원 기관들의 도움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너무 제도가 복잡하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하면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통과시킨 옴니버스 법안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음.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을 받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가격 제한 정책, 보조금 제한 규제, 비관세 장벽 등 정책 및 규제 장벽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평가하였음.
- 그린 전환을 위한 인재 개발의 차원에서 직접적인 녹색 직업, 간접적 녹색 직업, 전환 직업 등으로 나누어 일자리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방향을 요청하였음. 직접적 녹색 직업으로는 바이오디젤, 수처리, 폐기물 감축, 환경공학, 전기공학, 에너지 보전 등과 같은 부문에서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음. 간접적 녹색 직업으로는 녹색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내지만 관련된 직접 기술은 필요하지 않은 건축, 에너지, 제조, 농업, 운송 부분 등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였음. 전환 직업의 경우에는 석탄 부문과 같이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점차 소멸되어 다른 부문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였음.
- 전환 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녹색 관련 부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부문 등의 교육 과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고용 유연화를 통해 필요한 부문에 인력이 공급되고 소멸하는 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유지는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무역부, 2022년 수출입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 지속될 것



❖ 요약 및 시사점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서 성장에 제한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음. 2022년에는 민간 소비, 투자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입은 꾸준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는 2022년에 수출과 수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제 성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5~5.5%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가계 소비가 5~5.3% 성장, 수출 부문이 5.8~7.9% 성장, 수입이 6~8.6%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 지출은 2.8~4.5%의 성장을, 민간 투자는 5.6~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무역부에서는 2022년 상품 무역수지가 191~19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상품 서비스 수출은 4.16% 증가할 것이며, 非 석유/가스 수출이 5.4~5.79% 상승하고, GDP대비 수출 비중이 1.5%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 2022년 경제 상황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능력, 대중 소비의 회복, 구조 개혁 이행,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는 지의 여부, 백신 접종의 가속 여부, 보건 지침의 철저한 이행 여부 등이 사람들의 사회 경제 활동 재개에 영향을 줄 것임



인니 정부, 광업 부문 212.8억 달러 투자 목표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량을 바탕으로 광업 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지속해 가기로 하였음. 지속적인 제련소 확충과 전후방 산업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10위권 이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광물들의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212.8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보유량의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한 부가가치 상향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임. 니켈 이외에도 보크사이트 매장량/생산량 6위이며, 구리의 매장량은 7위, 생산량 12위임. 금의 잠재 매장량은 5위, 생산량은 6위임. 아연의 경우 세계 2위로 17%의 매장량과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희토류와 리튬 등 희소 금속에서도 풍부한 잠재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한 정제 기술을 충분히 가지지 못 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수준임.
- 현재, 인도네시아는 19개 제련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3개가 니켈 제련소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8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17개의 신규 제련소를 신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니켈 제련소를 30개까지 확보하게 됨. 2023년까지는 인도네시아에 53개에 달하는 제련소를 보유하는 계획임.